



**1차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걱정됩니다.**

●●● 에이즈에 감염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잦은 질병들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에 감염되어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이 생기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피부병, 염증, 에이즈로 인한 질환 등 지원 가능한지요. 또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나 식사비용 등의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1차 양성 나왔습니다... 급성증상을 느꼈고요.



**에이즈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에이즈 최종 판정은 3차까지 검사들 한 후에 최종 양성판정을 받게 됩니다. 3차 검사 결과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와 관련된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보험급여분이 해당 됩니다. 진료비 중 전화사용료, 제 증명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은 지원 제외항목입니다. 다인실의 경우 입원비는 보험적용 가능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담당 보건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결과를 확인하시고, 에이즈 치료와 관련해서는 감염내과 에이즈 전문의와 상의하시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상 많은 내용을 드리기에는 부족하므로 감염 후 건강관리나 에이즈와 관련된 정보 등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로 전화연락을 하시거나 내방 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02-2675-4111).



**환자들이 사용한 체온계가 깨져 다쳤습니다.**

●●● 제가 간호학과 학생이라 방학 중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준 종합병원 정도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체온계를 깨고는 수은이라는 생각에 허겁지겁 손으로 취급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상처가 조금 있었는데 체온계에 찔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온을 잰 시간이 새벽 6시이고 제가 체온을 재기 시작한건 9시 30분입니다. 환자들이 쓰던 온도계라 병동사람들의 땀이 다 섞여 있고 오염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바이러스는 보통 체내에 나오면 자체적으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체액에서 오래도록 생존하는 간염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고... 최근 에이즈에 대해 찾아보면 바삭 마른 체액에서만 100%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던데 걱정이 됩니다.



**감염경로와는 무관합니다.**

●●● 에이즈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 정액, 질액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된 사람의 이러한 체액이 타인의 피부조직 속으로 침투될 때 바이러스도 동시에 침투될 가능성이 있지만, 땀, 타액침 등의 체액으로는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아주 약하여 공기, 물 등에 노출되면 감염력을 잃게 됩니다. 내담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온도계 표면에 혈액, 정액, 질액 등이 묻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웠지만, 묻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체액에 의한 전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상포진에 걸리면 에이즈일 가능성이 있나요?

●●● 어머니께서 대상포진에 걸리셨는데 3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완치 되신 걸로 아는데 대상포진을 검색하다보니 에이즈란 단어가 나와 걱정 됩니다 제 나이는 26세이고 어머니 연세는 51세입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으신데 저의 경우 포비아이며 강박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절 두렵게 하네요. 손수 만드신 음식이 꺼려지기도 하고,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에이즈의 경우 대상 포진과 함께 어떤 걸 동반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검진 받았으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에이즈 검사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상포진은 꼭 에이즈에만 한정된 질병이 아닙니다

●●● 에이즈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물론 에이즈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기에 대상포진도 하나의 기회감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대상포진이었다 하여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막연하게 에이즈 감염이 걱정된다면 효도하는 입장에서 에이즈 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진찰권을 선물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협회에서 사전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계한 여성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 혹시나 에이즈 감염자들의 신상이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관계를 맺은 여성의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데 혹시 대조를 할 수 있는지요?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에이즈 감염사실을 밝히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 에이즈 감염인은 신분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염인의 개인정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도 알 수 없으며, 알고 있어도 본인의 타인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감염인 정보를 누설했을 시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만, 감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 상대 여성이 비감염인 이었다면 HIV 감염과는 무관하며, 감염인 이라 하더라도 상관계를 갖는다고 모두가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 감염인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의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입니다. 특히 여성으로부터 남성이 감염될 가능성은 0.1%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관계 12주 후 언제든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상담과 함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전화 1588-5448).